

사탕과 과자가 무척 귀할 때였어요.
참어머님께서는 사탕과 과자가 선물로 들어오면
하나도 뜯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 두셨어요.
그러고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식구들에게
선뜻 내주며 힘을 주곤 하셨어요.



“밤이 늦었는데
아직도 공부하고 있구나.”



성화 학생들이 교회 성전 한쪽에 상을 펴 놓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 좀 먹으면서 공부하렴.”
“이건 자녀님들 드리라고 선물로 들어온 과자잖아요.”
“너희도 내 자녀들이란다. 참부모에게는 모두가 아들과 딸이야.”
“감사합니다, 참어머님.”

“내일이 효진이 생일이지요?”

“예, 참어머님.”

“그럼, 이 근처에 살고 있는 식구들 중에 생일인 아이들도 초대해서 함께 생일파티를 해 줍시다.

돈이 없어 생일파티도 못 해 줄 테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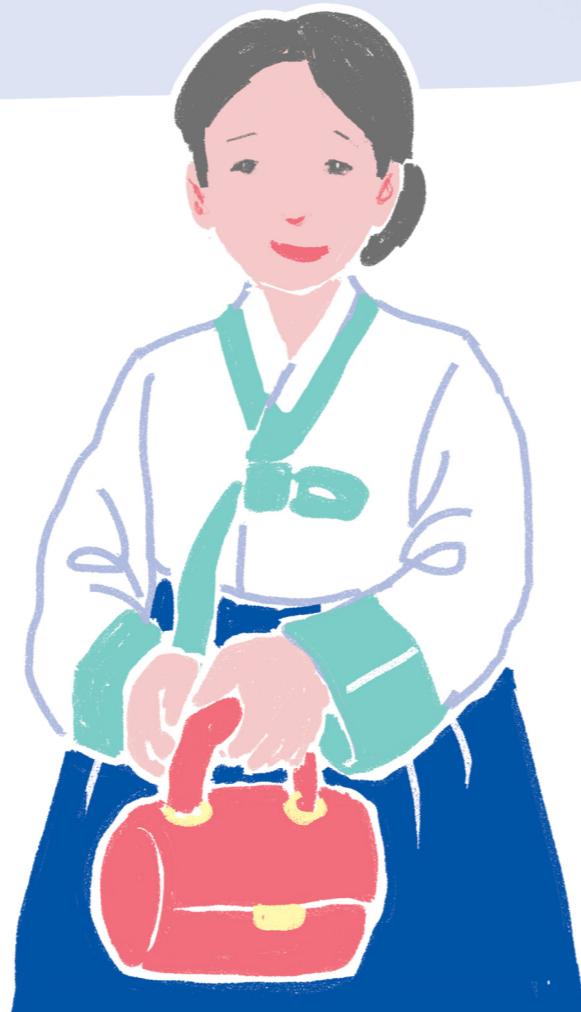


참어머님께서는 자녀님과 생일이 같은 아이들을 불러 생일파티를 함께해 주셨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식구들도 참자녀님과 마찬가지로 참어머님의 자녀로 생각하며 축하해 주신 것이지요.



하루는 참어머님께서 막 전도 활동을 마치고 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식구의 신발을 유심히 보셨어요.
그 식구는 발가락이 흘끔 보일 정도로 낡은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참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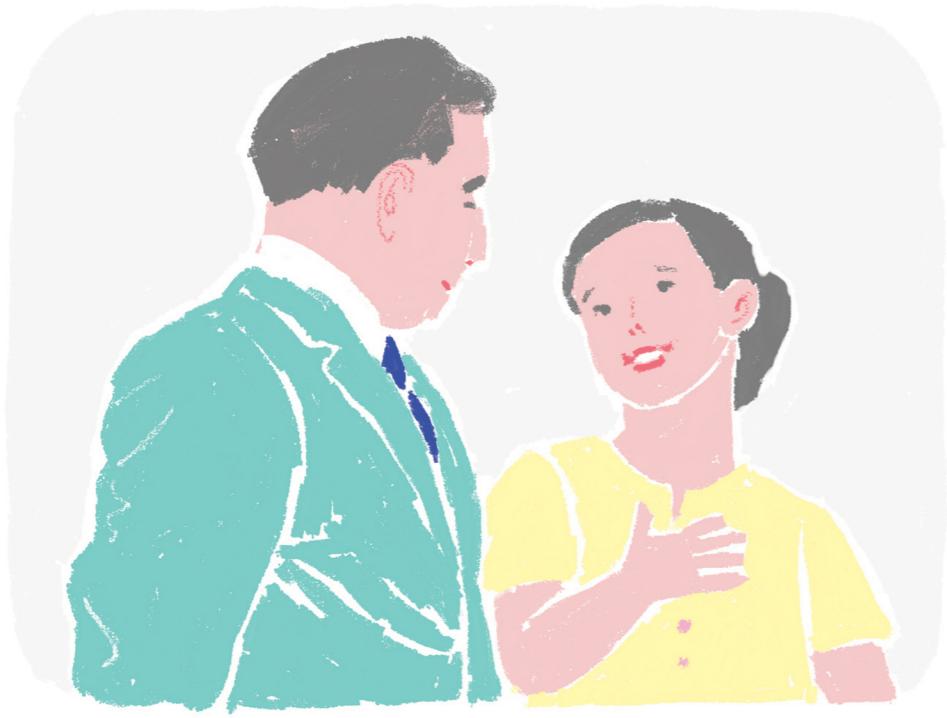
“다행히 발에 딱 맞네요.”
“감사합니다, 참어머님!”
“아! 잠깐만.”



참어머님께서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하나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 구두에는 이 가방이 어울리겠어요.”

참어머님은 어려운 식구들을 보시면 입고 계시던 옷이며, 신발이며, 가방까지 주셨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참어머님께서 커다란 보자기들을 꺼내 옷을 싸고 계셨어요.

참아버님께서 궁금해 하시며 물어보셨어요.

“뭘 하려고 그래요?”

“이건 외국에 있는 우리 교회에 보낼 보따리들이에요.”

외국에 나가 원리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보낼
옷 보따리를 싸고 계셨던 거예요.

참어머님은 외국에서 제대로 못 먹고, 못 입으며 고생하는
선교사들을 늘 친자식처럼 보살펴 주셨어요.





교회 행사로 선교사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어요.

“옷을 사러 갑시다.”

참어머님은 선교사들을 데리고 큰 옷가게에 가셨어요.

“선교사님은 이 옷이 잘 어울리겠어요. 한번 입어 봐요.”

참어머님께서는 한 명 한 명 어울릴 만한 옷을 직접 골라 주셨어요.
그런데 한 선교사에게 어울리는 옷이 좀처럼 보이질 않았어요.
어울리는 옷을 찾기 위해 몇 시간을 걸어 다니다 보니
참어머님의 다리가 통통 부어 있었어요.

옆에서 참어머님을 모시는 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참어머님, 다리가 너무 부으셨어요.
이제 그만 돌아가시는 게 어떠세요?”
“아닙니다. 아직 선교사님에게 어울릴 만한 옷을 골라 주지 못했어요.”

참어머님은 끝끝내 그 선교사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골라 사 주셨어요.
이렇게 참어머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세심하게 사랑을 주셨답니다.





참어머님께서 옷장 문을 여셨어요.
그런데 옷장이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지금 함께 나가야 되니
어서 준비하세요.”
“네, 옷만 갈아입으면 돼요.”



참아버님께서 깜짝 놀라 물으셨어요.

“아니, 당신 옷이 다 어디로 갔어요?”
“식구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나눠 주다 보니 이렇게 되었네요. 전 괜찮아요.”

빙그레 미소 짓는 참어머님을 보시며 참아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식구들의 어머니인 당신이 참 자랑스러워요.”